

제 1강 원시건축

◆1교시: 석기시대

▲시대를 나누는 구분

고대는 크게 보면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을 나누는 큰 시대구분인데 이거는 요즘은 초기 근대라고 많이 그래, 근세라는 개념은 아마 일본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쓰던 것일 테고, 그래서 이때는 기독교가 제일 대표적인 인본주의, 인간, 근대는 기계문명, 물질, 산업 그리고 고대시대는 보통은 전체정권에서 시민계급이 형성되는 이런 게 고대사회의 큰 중요한 개념이죠. (문명을 이끌어간) 그다음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그래서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고대 때 이미 서양문명의 뿌리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옛날 사람들 이라고 막 험벗고 무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상당히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었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헬레니즘이고, 기독교 문명, 히브라이즘 이라고 해서 2H문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크게 보면 원시시대 그다음에 고대 근동지역과 이집트, 에게 해를 거쳐서 로마로가 큰 흐름이고, 고대문명에 대체적으로 고대 근동지방과 이집트까지가 청동기 문명이고 보통은 오리엔탈,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해요. 지역이 주로 동방을 근거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애매해 사실은 우리가 극동에 살기 때문에 적어도 동양하면은 인도나 동남아까지는 동양이라고 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서쪽으로 하면 보다 복잡해지죠. 사람의 생김새도 많이 틀리고, 그런데 축구 시합할 때 나누는 것을 보면 은 그게 더 정확한 구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되게 애매해. 축구 시합할 때 보면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꼭 끼었는데 요즘은 유럽 쪽에 끼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서양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아라비아 반도와 메소포타지역까지는 동방으로 보는 게 통례예요. 서양 입장에서는 종교도 틀리고 말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오리엔탈 문명 대체적으로 이때가 대륙에 고대 전체문명시대고, 에게해 문명이 일종의 전환기죠. 전환기. 그리스 때부터 철기 문명이 완성이 되면서, 이때부터 서양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부터는 완전히 그 유럽문명이 확실히 시작되는 지역인거죠. 그래서 대륙의 전체문명인데 반해서 여기는 지중해 그다음에 시민계급, 시민이라는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개념이 형성이 되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지면서 고대라고 하는 에이션트 Ancient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특히 이런 문명들이 이후에 계속되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이슬람문명으로, 이슬람권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의 문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에이션트 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지요. 에이션트 그리스, 에이션트 롬.. 그것들이 고대문명의 큰 특징 이었고. 그리고 각 시기마다 중요한 건축적인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가요.

▲ 석기시대 건축

원시주의 문명은 보통 신석기시대부터 건축이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해. 구석기시대는 유럽, 그죠? 채취, 주로 동굴이나 이런데 살았기 때문에 건축으로는 안보고, 건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공성, 사람이 만든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석기시대까지는 건축 개념이 아직 안 나타난 것으로 보고, 신석기 시대 때 정착, 농업생산이 대거 급증하면서 돌만 잘 깎아도 엄청난 문명의 변화를 몰고 온 거였지요. 이렇게 되면서 무언가 안정된, 쉼터가 필요해 진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야말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관리가 있고, 이거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죠. 주술적인 개념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주거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의 기념비(공공개념의)가 형성이 됨. 그래서 주거는 프라이빗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주거 자체가 하나의 엄청나게 큰 개념이지요. 보통 우리는 대작하면은 미술과 콘서트홀, 엄청나게 큰 건물만 생각을 하는데, 규모면에서는. 근데 이 건축적인 생각들은 그니깐 주거의 요소가 많아요. 공공건물보다는 프라이빗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강하단 이야기지요. 이거는 반면에 기념비 쪽으로 갈수록 객관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깐 열사람의 공통된 관심사를 모아들수록, 한사람의 공통 관심사는 그 사람의 관심사 전체가 다 관심사인데, 프라이빗영역에서는, 저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통관심사를 모으다 보니, 여기서 여러분들의 공통관심사는 몇 개 없자나 슈퍼주니어?(사적인 이야기) 그니깐 이것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된다는 것은 요소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신석기시대 건축에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시 오두막에 관해서

오두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임시 가설물이기 때문이 이미 남아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책보면 은 그림3 이런 게 원시오두막을 추측 복원한, 이쪽 영역은 사실 고고학의 영역이죠. 우리도 많이 접하는 이야기지요. 가끔 청동기시대 때, 신석기시대 때 유적이 발견되었네, 하면은 터만 나오잖아요. 터를 기초로 해서 이 주거형태 이런 것을 추측복원을 하게 되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 장면이 그림3이고. 그니깐 이거는 그 오리지진 origin의 의미로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히나 건축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사람들은 가끔 이 오리지진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건축모델을 찾고자 할 때, 일종의 원시주의적인 입장이지요. 혹은 뭐 퓨리터니즘=순결주의적인 거죠. 건축적인 모델을 인류문명의 때,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욕망도 개입이 되고 그니깐 그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상태, 사람으로 친다면 갓 태어난 애기, 거기서부터 뭔가를 모델을 찾으려는 이런 시도에서는 이 원시오두막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요. 단순히, 사라지는 유물이 아니라 이 원시오두막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가구식 구조. 이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건축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 뭐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같은 것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이야기구요.

▲기념비 건축의 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기념비 건축, 석조 건축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고. 기념비 건축에서. 이 시기에 기념비건축은 크게 나누면, 무덤(고인돌) 그 다음에 그야말로 순수 기념비. 이계(무덤) 이제 고인돌 그리고 이계(기념비) 선돌(멘히르) 형태는 같은데, 밑에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무덤은 무덤기능과 경계표시를 하였다. 무덤은 가장 기본적인 가구식구조인데, 상판이 제단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위에 제물도

올려놓고 양도 잡고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주술기능들, 제의와 관련된 주술기능,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것이란 이야기고. 거기에 스톤헨지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스트로베리 힐에 있는 스톤헨지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기능들을 가져요 이게, 그거와 더불어서 구성이나 도면, 이런 것들은 책에 있으니깐 읽어보도록 하고,

▲스톤헨지

이 스톤헨지는 이런 한 세트(고인돌)라고 봤을 때, 스톤헨지는 선돌의 복합단지예요. 이게 기하 적으로나 기하작도라던가, 전체 구성이 기하작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깐 이게 각도라던가, 뭐 치수 방위 이런 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로 봐서 이게 당시로써는 천체라던가, 천체의 흐름을 읽는 그런 중요한 도구판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단지에 보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 선돌이 쪽 있고, 사이사이에 작은 돌들이 사람 몸통만한 돌들이 있는데,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 이게 포터블인데, 이것들이 상관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니깐 예를 들어서 이 스톤헨지가 이렇게 있으면 밖에 키스톤이 놓이게 되는데 이런 키스톤 안에 삼석탑(돌이 세 개로 이루어진, 기둥2, 상판보1)이 있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탑이 고대에서 갖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 하늘을 향해서 갖는 여러 가지 문명적인 입장이 있고, 높이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적어도 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같은 것들은 이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상대하겠다는 여러 가지 종교심의 발로인 거고, 이런 삼석탑의 세트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움직일 수 있는 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복합단지 밖에 키스톤이라는 삼석탑 세트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 하짓날 키스톤에 올라가서 스톤헨지를 바라보면은 태양이 스톤헨지에 걸린다 이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해가 스톤헨지에 걸리면 (일년중)해가 가장 긴 날 이었다는 것을 옛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역산을 하면은 해가 걸리기 전에 파종을 해야 하고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시로서는 첨단 계측장비로 쓰였을 거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주산 역할도 하고, 컴퓨터 요즘으로 치면 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졌던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돌덩이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명으로써는 이런 것들이

▲무덤을 통해 추산 할 수 있는 것과 무덤의 부가적인 기능

그래가지고 이 무덤이라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인돌이 나오면 은 최소한 뭐 오천 명 정도에서 삼천 명 정도에 인구를 가진 집단 이었다는 것이 역으로 추산이 되는 것이 지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나 경제력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 정도 돌덩이를 캐서 이것을 다듬어서 세우기 위해서는 장정 몇 명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역산을 행하다 보면 이정도 무덤을 세울 수 있을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강화도 고인돌. 그게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그걸 역산해 보면 집단의 규모가 나오는 것이지요. 군집의 규모가 바뀌어 이야기해 보면 당시의 신석기 인들이 이제 무덤이 서있는 걸 보면 이걸 보고 안심을 하는 거죠 안심을. 아 우리 왕초는, 우리 족장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여서 우리 집단은 어느 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외침에 있어서 내가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 기능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고도의 심리적인 기능을 갖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충성

심이 우러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단 이야기에요. 이런 게 전부 어디로 종합해서 가느냐면 고대 전제 문명에서 거석구조로 통합이 되죠.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이 커지면 좋아. 그죠? 그리고 거꾸로 더 커갈수록 요런 복합적인 기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대 국가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군집의 단위도 커지고, 군집의 장의 힘도 커지고, 그러다보니깐 커진 힘에 권위에 맞게 더 큰 구조물을 짓게 되고 더 큰 구조물을 지을만한 여력들이 생기고, 이런 게 계속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이런 게 고대 거석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은 고대 거석구조는 상당히 무모하고, 그렇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것도 그렇고..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일정한 사회기능을 가졌다는 이야기지요.